

2017년 2분기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7년 2분기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조 경 엽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연 구 위 원
이 승 석	부 연 구 위 원

## 〈 차례 〉

요약 .....	v
제I장 최근 경제동향 .....	1
1. 경제성장 .....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8
3. 고용 .....	14
4. 물가 .....	16
5. 금리와 환율 .....	18
제II장 국내경제전망 .....	21
1. 대외 여건 .....	23
2. 2017년 국내경제전망 .....	30
부록 .....	47

〈 표 차례 〉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	7
〈표 I-2〉 연령별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	16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	24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26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27
〈표 II-4〉 환율 전망 .....	28
〈표 II-5〉 전망의 주요 전제 .....	30
〈표 II-6〉 서비스수지 항목별 추이 .....	40
〈표 II-7〉 2017년 국내경제전망 .....	45

## 〈그림 차례〉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	3
〈그림 I-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	5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	6
〈그림 I-4〉 경기종합지수 .....	7
〈그림 I-5〉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	8
〈그림 I-6〉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	8
〈그림 I-7〉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	9
〈그림 I-8〉 주요 12대 품목 수출증가율 .....	10
〈그림 I-9〉 가공단계별 수입 .....	11
〈그림 I-10〉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	12
〈그림 I-11〉 경상수지 추이 .....	13
〈그림 I-12〉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	13
〈그림 I-13〉 서비스 수지 항목별 증감 .....	13
〈그림 I-14〉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	14
〈그림 I-15〉 15세 이상 인구 증감 구성 .....	14
〈그림 I-16〉 산업별 취업자 증감 .....	15
〈그림 I-17〉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17
〈그림 I-18〉 품목성질별 증가율 .....	17
〈그림 I-19〉 아파트매매가격 .....	18
〈그림 I-20〉 아파트전세가격 .....	18
〈그림 I-21〉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19
〈그림 I-22〉 장단기 및 신용스프레드 .....	19
〈그림 I-23〉 원/달러, 달러 인덱스 .....	20
〈그림 I-24〉 외국인 주식 순매수 .....	20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	25
〈그림 II-2〉 달러 인덱스 .....	29
〈그림 II-3〉 위안/달러 환율 .....	29
〈그림 II-4〉 엔/달러 환율 .....	29
〈그림 II-5〉 달러/유로 환율 .....	29
〈그림 II-6〉 가계평균소비성향과 가계소비 증가율 .....	31
〈그림 II-7〉 최근 가계 소득 현황 .....	32
〈그림 II-8〉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	32

〈그림 II-9〉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	33
〈그림 II-10〉 BSI(업황 및 설비투자) .....	33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	34
〈그림 II-12〉 미분양 추이 .....	34
〈그림 II-13〉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세계교역량 .....	35
〈그림 II-14〉 GDP 지출항목별 기여도 추이 및 전망 .....	37
〈그림 II-15〉 주요국 국가부채비율(국가부채/GDP, %) .....	38
〈그림 II-16〉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	39
〈그림 II-17〉 전세가격, 임금증가율 .....	41
〈그림 II-18〉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41
〈그림 II-19〉 소비자물가 품목성질별 기여도 .....	42
〈그림 II-20〉 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	43
〈그림 II-21〉 주요 투자은행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 .....	43

## 요약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2017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보였다. 이는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1%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인 것이다. 건설투자가 내수를 견인하는 가운데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의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5.3%로 지난해 10.7%보다 5%p 이상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까지는 지난 2년간 증가한 건축허가 면적의 영향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정부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하강하고, SOC예산도 축소되어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호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설비수요가 늘면서 6%대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평균소비성향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가계 실질소득 악화, 금리상승에 따른 본격적인 이자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2.5%에서 0.6%p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데다 수출단가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업종의 높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2.1%보다 높은 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다 부채, 고령화, 생산성 하락세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과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유럽 등 일부국가들의 반세계화 흐름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 상황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하반기 기준금리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원화강세가 제약을 받으면서 전년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201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나 투자(건설 및 설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해 대외여건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 높은 2.9%로 전망된다. 美 기준금리 인상과 트럼프행정부의 정책후퇴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우리경제의 내수부문 중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제고되면서 성장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I. 최근 경제동향

### ■ 2017년 상반기 중 견조한 성장세 시현

- 2017년 1/4분기 실질GDP 전기대비 1.1%, 전년동기비 2.9% 증가
  - 전기대비 성장률은 20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만에 1% 상회
  -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회복세는 부진, 반면 투자(건설 및 설비)의 큰 폭 증가, 고정투자 호조, 해외소비 증가 등으로 수입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 내수부문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제고되면서 성장의 내용도 개선
- 4월 산업활동 지표를 살펴볼 때, 생산은 둔화되었으나 소비, 투자, 경기 등 대부분 호조세를 유지 → 2/4분기 중 성장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 ■ 수출입(통관기준) 모두 1~5월 중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 기록

- 수출은 2016년 4/4분기 플러스 반등, 올 1/4분기 11.6%, 4~5월 23.1% 증가
  - 중국, 일본, EU, ASEAN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 증가, 반면 對美수출은 4월(3.7%) 반등했으나 5월(-1.8%) 다시 감소
  - 상위 12대 품목 중 자동차부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품목 증가세 지속

- 수입은 2016년 4/4분기 플러스 반등, 올 1/4분기 19.3%, 4~5월 18.8% 증가
  - 생산증가 및 설비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1차산품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큰 폭 상승
- 무역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전년동기대비 축소
- 무역수지(억 달러): 368억 달러(2016년 1~5월) → 349억 달러(2017년 1~5월)
  - 수출입증가율 차이(%p): 2.5%p(2016년 1~5월) → -5.0%p(2017년 1~5월)
- 경상수지, 1~4월 234억 달러 흑자(전년동기대비 57억 달러 감소)
- 전년동기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것은 서비스 수지 악화가 주요인
  - 서비스수지 적자는 1~4월 중 112억 달러로 전년동기(55억 달러)대비 2배 증가
  - 사드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해운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운송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이 서비스수지 악화에 크게 기여
- 고용상황, 양적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
- 취업자 증가세 확대(전년동기대비): 361천 명(1/4분기) → 399천 명(4~5월)
- 하지만 산업별,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은 부족
  - 산업별로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높음
  - 연령별로는 취업자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청년(15~29세) 및 50~59세에서만 개선되고 나머지 연령층은 악화
- 소비자물가는 1/4분기 2.1%에서 4~5월 중 1.9%로 소폭 둔화
- 상품부문의 증가율이 2.0%에서 1.8%로 둔화된데 기인
  -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가격이 소폭 둔화된데 기인
- 근원인플레이션은 1/4분기 1.4%에서 4~5월에도 1.4%의 낮은 증가율 지속

- 시장금리, 美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수준에서 등락
  - 회사채(3년, AA-): 2.17%('16.12.15) → 2.20%('17.3.16) → 2.21%('17.6.15) → 2.22%('17.6.23)
    - 이는 한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국채 및 우량 회사채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데 기인
- 원/달러 환율, 미국 금리 인상을 전후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상반기 중 추세적 하락기조 유지
  -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달러가 상반기 내내 약세기조를 보인 반면 한국의 수출회복세 가시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II. 국내경제전망

###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선진국의 산업활동 호조, 투자지출 확대, 신흥국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IMF는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5%로 0.1%p 상향조정)
- (미국) 가계소득 증가, 고정 투자 회복 등으로 2%대 성장률 가능할 전망. 단 트럼프의 러시아 관련 의혹,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불확실성이 하방리스크
- (유로지역)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소비와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올 1.7%의 성장률 전망
- (일본)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교역량 및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중국) 부동산 시장불안, 기업부채 과다 등 하방리스크는 존재하나 소비증가와 수출회복세가 기대되면서 6.6% 성장 전망
- (국제유가) 초과공급 해소 어려움, 달러화 강세 전망 등이 유가 상승을 제약하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를 상한선으로 하방압력이 높을 전망
-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등 미국의 추가적인 증산 가능성 등이 상존해 초과공급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
  - 달러화 강세도 원유보유비용 증가,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수요 감소 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 환율) 2017년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현상이 완화될 전망. 이에 따라 엔화와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유로화는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통합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다소 강세를 보일 전망

- (미달러)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이 달러 강세 요인
  - (중국위안) 미국 금리인상,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약세 전망
  - (일본엔) 통화완화 기조 유지,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으로 약세 전망
  - (유로) 유로지역 경제지표 호조 및 佛 마크롱의 당선 등 정치적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6년 3.1%, 2017년 3.5%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6년 42달러/배럴, 2017년 50달러/배럴

## 2. 2017년 국내경제전망

- GDP 성장률: 2016년 2.8% → 2017년 2.9%(상반 2.9%, 하반 2.8%)
-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 건설 등 투자가 내수를 견인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성장률은 지난해(2.8%)보다 0.1%p 높은 2.9%를 보일 전망
  - 민간소비: 2016년 2.5% → 2017년 1.9%(상반 2.0%, 하반 1.9%)
    -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평균소비성향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소득 악화, 금리상승에 따른 본격적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낮은 소비 증가율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 2016년 -2.3% → 2017년 6.5%(상반 10.4%, 하반 2.7%)
    -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호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설비확충

- 수요가 늘면서 6%대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
- 단, 하반기에는 시장금리상승기조, 최근 설비투자 압력 약화, 신정부의 기업 및 노동부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율 둔화 전망
- 건설투자: 2016년 10.7% → 2017년 5.3%(상반 8.3%, 하반 2.7%)
    - 상반기까지는 지난 2년간 증가한 건축허가 면적의 영향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부동산경기가 하강하고, SOC예산 축소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둔화
  - 실질수출: 2016년 2.1% → 2017년 3.0%(상반 3.6%, 하반 2.3%)
    - 2017년 수출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2016년 보다 높은 증가율 기록 전망
    - 하반기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원화의 엔화대비 상대적 강세, 수출단가 회복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은 올 성장 전망에 하방 리스크
    - 과다 부채, 고령화, 생산성 하락세 등은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요인
    -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등
- 경상수지: 2016년 987억 달러 흑자 → 2016년 913억 달러 흑자(상반 484억 달러, 하반 430억 달러)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 운송, 건설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작년 987억 달러 → 올해 913억 달러로 흑자 규모 소폭 축소
      - 상품수지 흑자는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2016년 1,20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243억 달러로 소폭 증가
      -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6년 176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84억 달러로 확대
  - 소비자물가: 2016년 1.0% → 2017년 1.8%(상반 2.0%, 하반 1.6%)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1.8%로 지난해 1.0%보다 크게 오를 전망

- 다만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이어서 유가상승, 기상악화 및 조류독감 등 상반기 물가상승 요인들이 약화되는 하반기(1.6%)에는 상반기(2.0%)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6년 1.9% → 2017년 2.3%(상반 2.2%, 하반 2.4%)
  -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국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1.9%에서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단 한국 기준금리 연내 동결, 하반기 물가 및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원/달러 환율: 2016년 1,161원 → 2017년 1,146원(상반 1,142원, 하반 1,150원)
  - 원/달러 환율은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 상황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 절상된 1,146원 예상
    - 하지만 하반기 기준금리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원화가 절하될 전망

## 2017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7	2016	2017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8	2.8	2.9	2.8	2.9
민간소비	2.2	2.5	2.0	1.9	1.9
건설투자	6.6	10.7	8.3	2.7	5.3
설비투자	4.7	-2.3	10.4	2.7	6.5
수출(재화+서비스)	-0.1	2.1	3.6	2.3	3.0
수입(재화+서비스)	2.1	4.5	8.1	3.7	5.9
소비자물가	0.7	1.0	2.0	1.6	1.8
생산자물가	-4.0	-1.8	3.8	2.4	3.1
경상수지(억 달러)	1,059.4	986.8	483.6	429.9	913.4
상품수지(억 달러)	1,222.7	1,204.5	675.2	567.8	1,243.0
수출(억 달러, BOP 기준)	5,428.8	5,117.8	2,933.3	2,841.6	5,774.9
증가율(%)	-11.4	-5.7	19.0	7.1	12.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06.1	3,913.3	2,258.1	2,273.8	4,531.9
증가율(%)	-19.8	-7.0	22.7	9.7	15.8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3.3	-217.7	-191.6	-137.9	-329.6
환율(원/달러, 평균)	1,130.9	1,160.9	1,141.6	1,149.5	1,145.6
회사채수익률(3yrs, AA-)	2.1	1.9	2.2	2.4	2.3
실업률(%)	3.6	3.7	4.1	3.4	3.8
취업자 증감(천 명)	337.0	299.0	294.2	299.5	313.9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자료: 한국은행



## 제 I 장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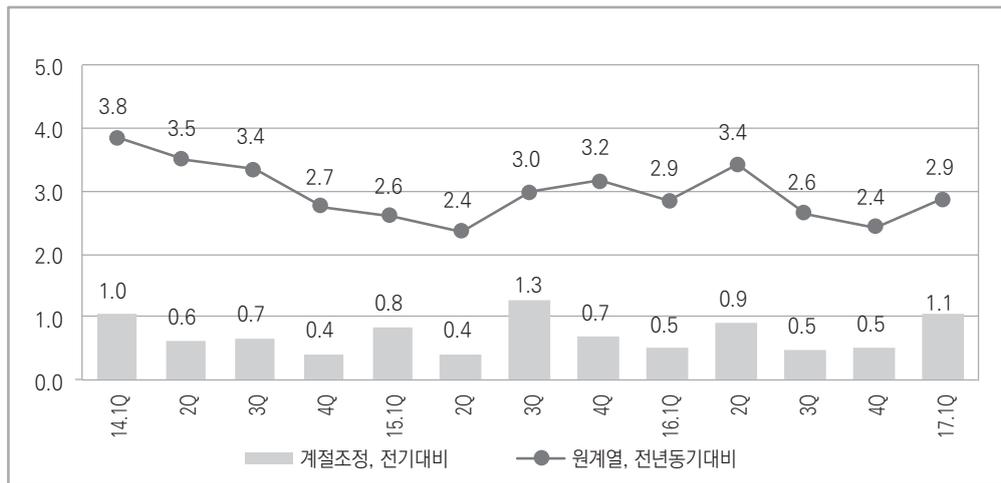


## 1. 경제성장

- 2017년 1/4분기 실질GDP 전기대비 1.1%, 전년동기비 2.9% 증가
  - 전기대비 성장률은 20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만에 1% 상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016년 2분기(3.4%) 이후 2분기 연속 하락 후 반등
    - 전기비 0.5%(2016. 4/4) → 1.1%(2017. 1/4)
    - 전년동기비 2.4%(2016. 4/4)→ 2.9%(2017. 1/4)

〈그림 I -1〉 실질GDP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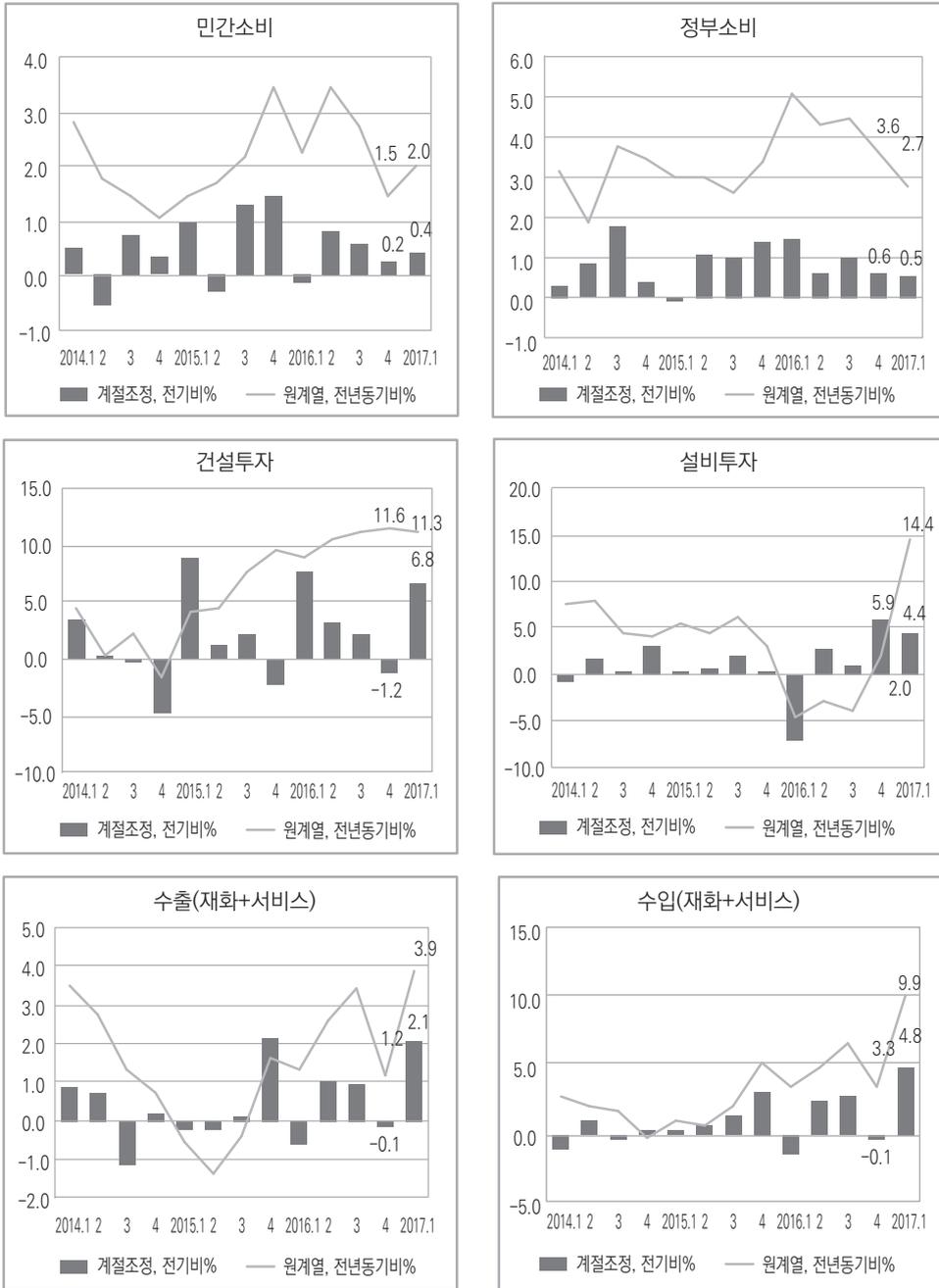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최종수요) 민간소비 회복세는 부진한 반면 투자(건설 및 설비)의 큰 폭 증가. 고정투자의 회복, 거주자 해외소비 증가 등으로 수입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증가에도 불구, 비내구재 및 준내구재 소비감소로 전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 가계소비 중 거주자 해외소비를 뺀 국내소비는 전기비 0.3% 감소

- 건설투자는 건물(주택)건설, 토목(통신)건설이 증가하면서 전기비 6.8% 상승
  - 단, 전분기의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고,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른 긍정적 수혜로 전년 4/4분기 5.9% 증가에 이어 올 1/4분기에는 전기대비 4.4% 증가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등 기타지식생산물 투자 증가(3.7%)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가 감소(-0.9%)하면서 전년 4/4분기 0.6%에서 올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3% 증가로 둔화
  
- 수출은 반도체,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2.1% 늘어났으며,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등이 늘어 4.8% 증가
  - 서비스수출은 운수서비스, 비거주자 국내소비 등이 줄어 3.3% 감소, 반면 서비스수입은 운수서비스, 거주자 국외소비 등이 늘어 7.8% 증가

〈그림 1 -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기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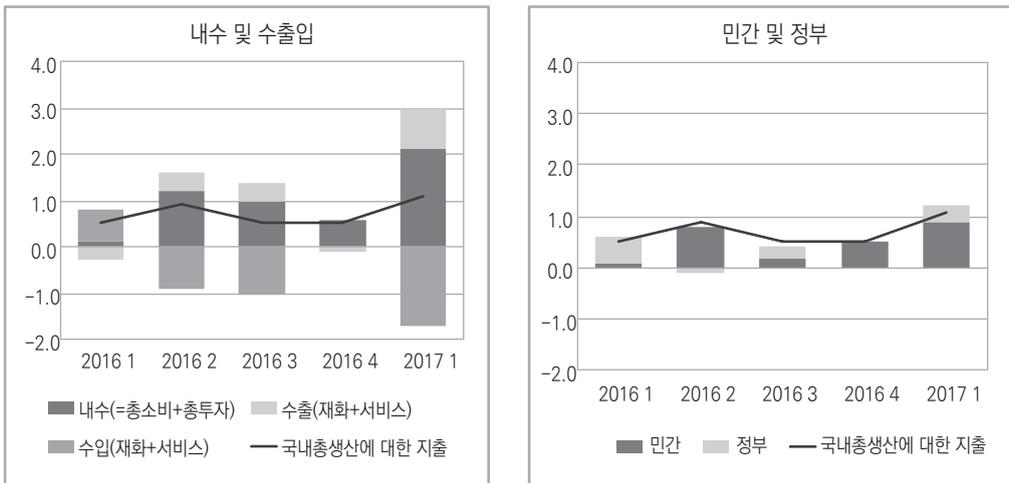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기여도) 내수부문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제고되면서 성장의 내용도 개선
  - 내수는 총자본형성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수출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보임
    - 내수(총소비+총투자): 0.6%p(2016. 4/4) → 2.1%p(2017. 1/4)
    - ✓ 총소비: 0.2%p(2016. 4/4) → 0.3%p(2017. 1/4)
    - ✓ 총투자: 0.4%p(2016. 4/4) → 1.8%p(2017. 1/4)
    - 수출: -0.1%p(2016. 4/4) → 0.9%p(2017. 1/4)
  -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0.9%p로 정부부문 기여도 0.3%p를 크게 상회

〈그림 1-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비, %p)



자료: 한국은행

- 4월 산업활동 지표를 살펴볼 때, 생산은 둔화되었으나 소비, 투자, 경기 등 대부분 호조세를 유지 → 2/4분기 중 성장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 (생산) 제조업 생산 둔화 영향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소폭 둔화
    - 산업생산: 3.9%(1/4) → 3.5%(4월) (제조업: 3.8%(1/4) → 1.7%(4월))

- (소비) 가전 등 내구재 판매호조로 증가세 지속
  - 소매판매: 2.0%(1/4) → 2.8%(4월)
- (설비투자) 전분기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두 자리수 증가율 유지
- (건설기성) 1/4분기 18.0%에서 4월 19.4%로 확대
-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도 4월 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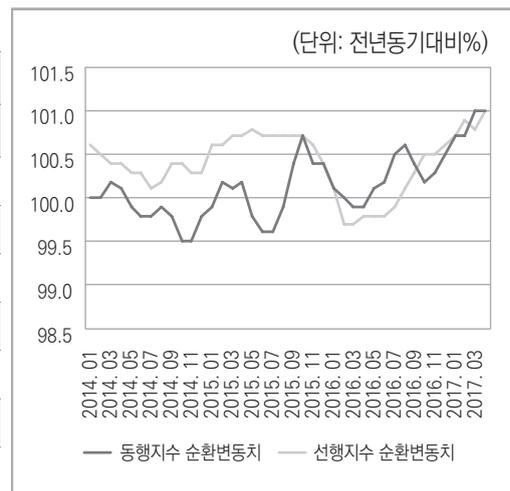
〈표 1-1〉 주요 산업활동 지표

(단위: yoy %, %)

		2016	2017		
		4/4	1/4	3월	4월
생산	전산업	3.5	3.9	4.1	3.5
	제조업	2.9	3.8	3.4	1.7
	서비스업	2.1	2.6	2.8	2.5
	평균가동률	72.4	72.7	72.8	71.7
소비	소매판매	2.5	2.0	1.4	2.8
투자	설비투자	5.9	18.0	23.3	14.1
	건설기성	17.7	18.0	18.5	19.4

자료: 통계청

〈그림 1-4〉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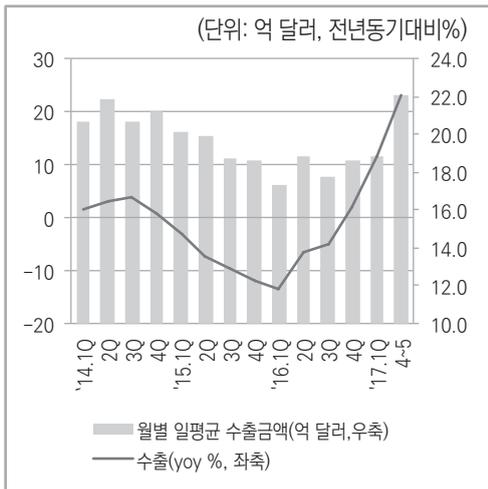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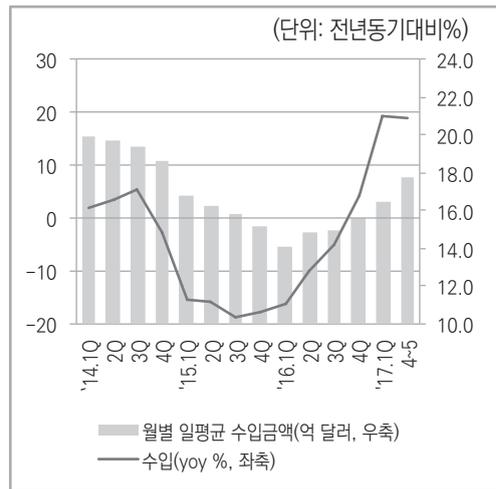
- 수출(통관기준)은 2016년 4/4분기(1.8%)에 8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등한 후, 올 1/4분기 11.6%, 4~5월 23.1%로 성장세 확대
- 수입(통관기준)은 2016년 4/4분기(4.1%)에 9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등한 후, 올 1/4분기 19.3%, 4~5월 18.8%의 큰 성장세 기록

〈그림 1-5〉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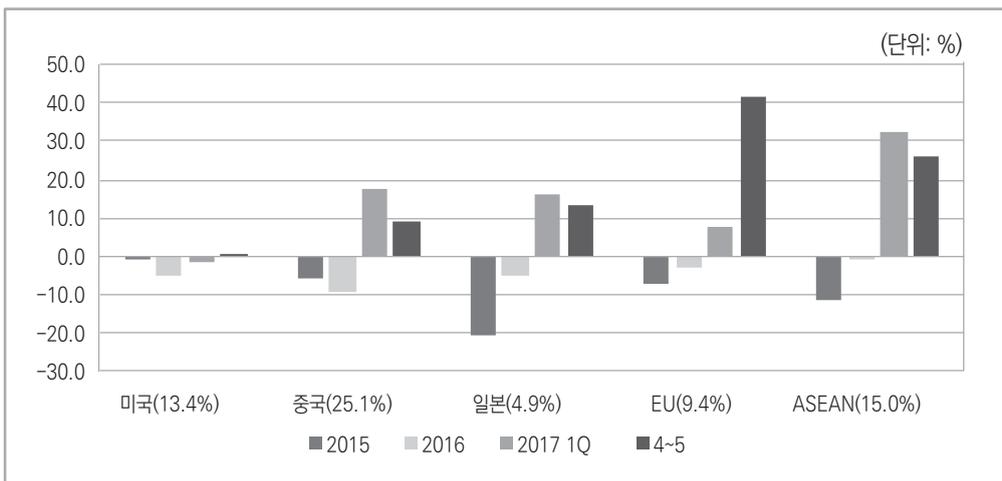
〈그림 1-6〉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별 수출) 중국, 일본, EU, ASEAN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 증가. 반면 對美수출은 4월(3.7%) 반등했으나 5월(-1.8%) 다시 감소
  - 대중국수출은 설비 및 건설투자 호조로 반도체, 일반기계, 정밀기계 증가
  - 대일본수출은 철강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이 수출 주도
  - 대EU수출은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화학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대미수출은 현지판매 부진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
  - 대ASEAN은 반도체,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이 호조

〈그림 1-7〉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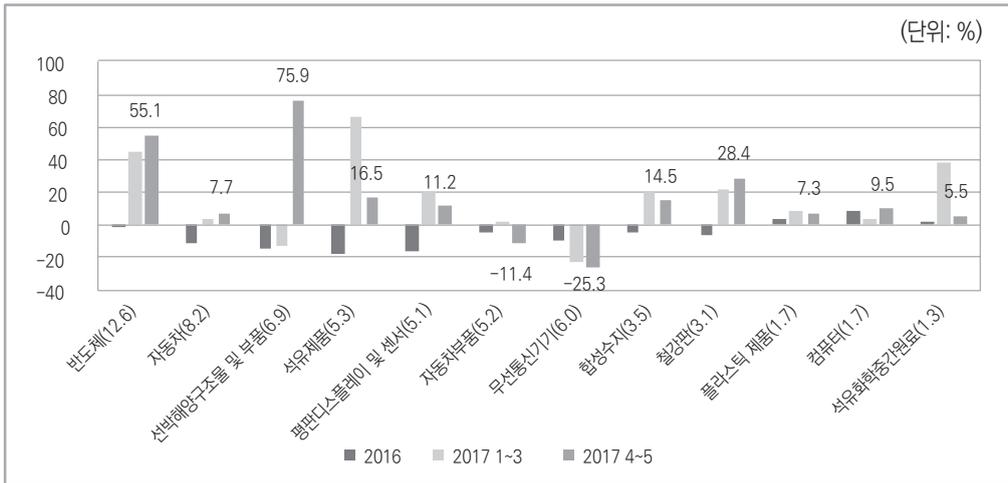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내 수치는 2016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

- (12대 품목별 수출) 자동차부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주요품목 증가세 지속, 2017년 1~3월 대비 2017년 4~5월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증가세 확대)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판, 컴퓨터
  - (증가세 둔화)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석유화학중간원료
  - (감소세 지속)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 ✓ 북미, 아시아 지역 해외 현지공장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품수출 감소
- ✓ 휴대폰 해외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확대 등의 영향(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14) 86.3 → ('15) 88.1 → ('16) 89.7

〈그림 1-8〉 주요 12대 품목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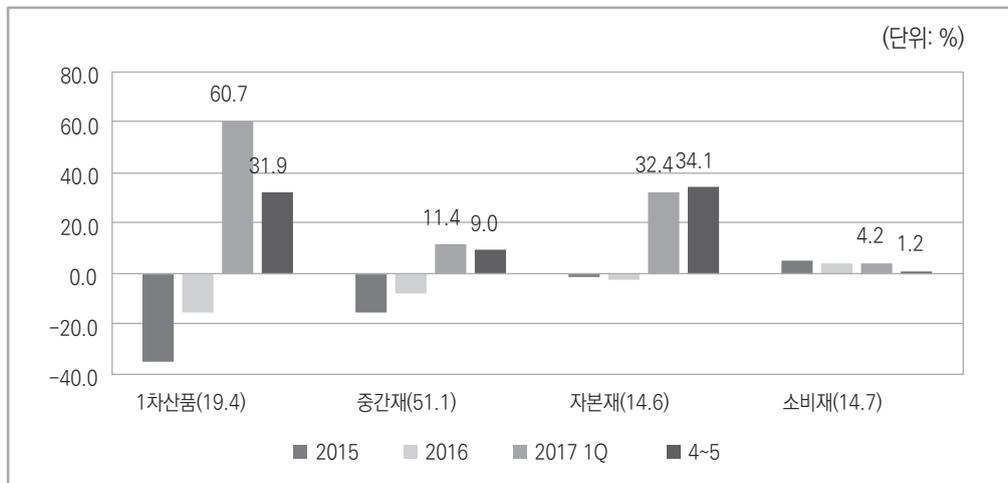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내 수치는 2016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 (가공단계별 수입) 생산증가 및 설비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1차산품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 큰 폭 상승
  - (1차산품) 원유, 유연탄, 철광 등 수입단가 상승, 수출확대의 영향으로 증가
  - (자본재) 주력산업 선제투자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증가

〈그림 1-9〉 가공단계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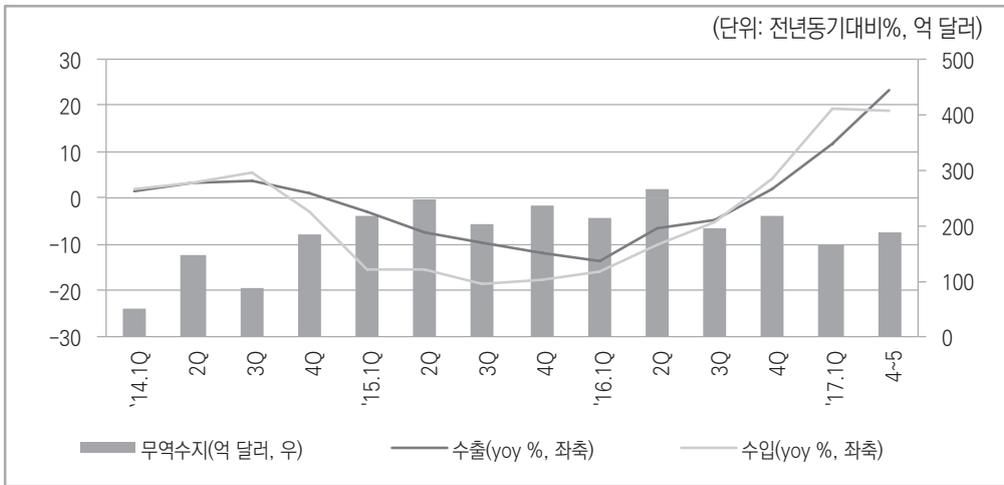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내 수치는 2016년 기준 품목별 수입비중

■ 무역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전년동기대비 축소

- 무역수지(억 달러): 368억 달러(2016년 1~5월) → 349억 달러(2017년 1~5월)
- 수출입증가율 차이(%p): 2.5%p(2016년 1~5월) → -5.0%p(2017년 1~5월)

〈그림 1-10〉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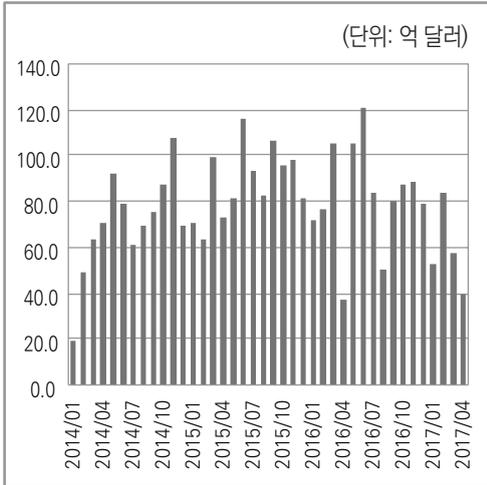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경상수지 흑자, 1~4월 234억 달러 흑자(전년동기대비 57억 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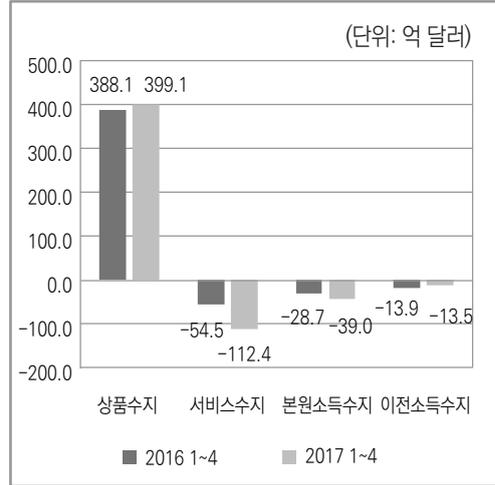
- 전년동기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것은 서비스 수지 악화가 주요인
  - 상품수지 흑자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소폭 증가
  - 서비스수지 적자는 1~4월 중 112억 달러로 전년동기(55억 달러)대비 2배 이상 증가
  - ✓ 사드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지난해 해운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운송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이 서비스수지 악화에 크게 기여
  - 본원소득수지는 주식배당 지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여 적자 확대
  - 이전소득 적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그림 I -11〉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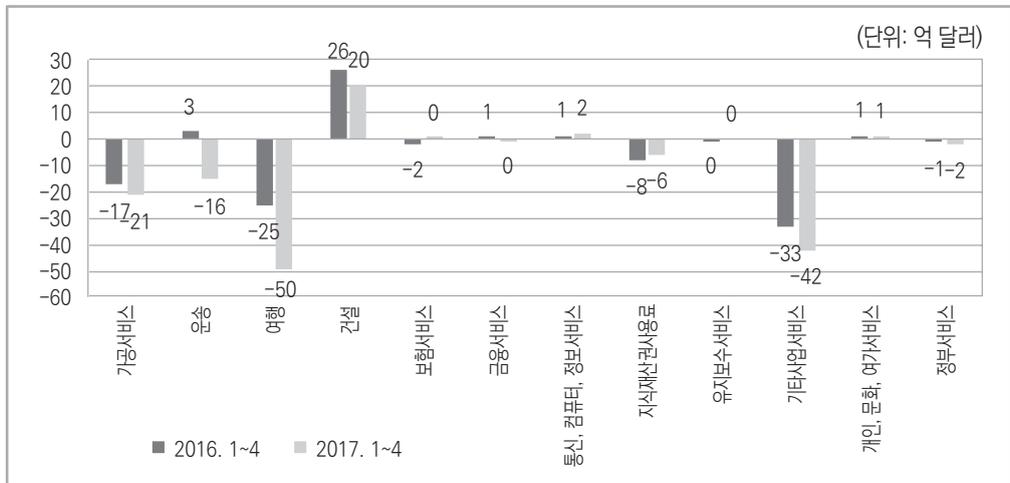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 -12〉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 -13〉 서비스 수지 항목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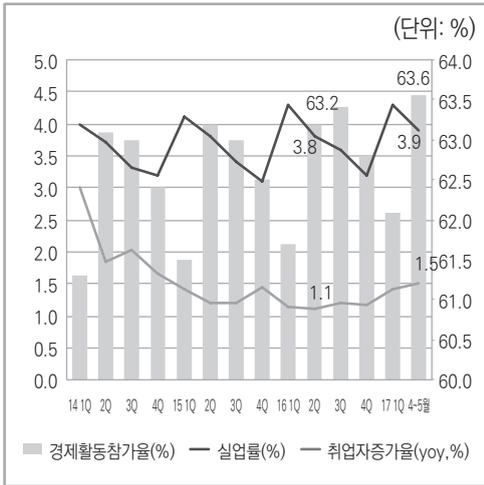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고용

■ 고용상황, 양적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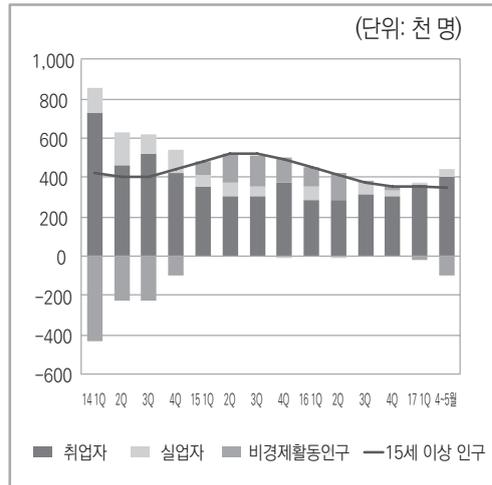
- 취업자 증가세 확대(전년동기대비): 361천 명(1/4분기) → 399천 명(4~5월)
  - 단, 실업률 증가는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기인
  - 실업률(원계열): 4.1%(2016년 1~5월) → 4.2%(2017년 1~5월)
  - 1~5월 중 증감(천 명): 354(15세 이상 인구) = 376(취업자) + 28(실업자) + -49(비경제활동인구)

〈그림 I -14〉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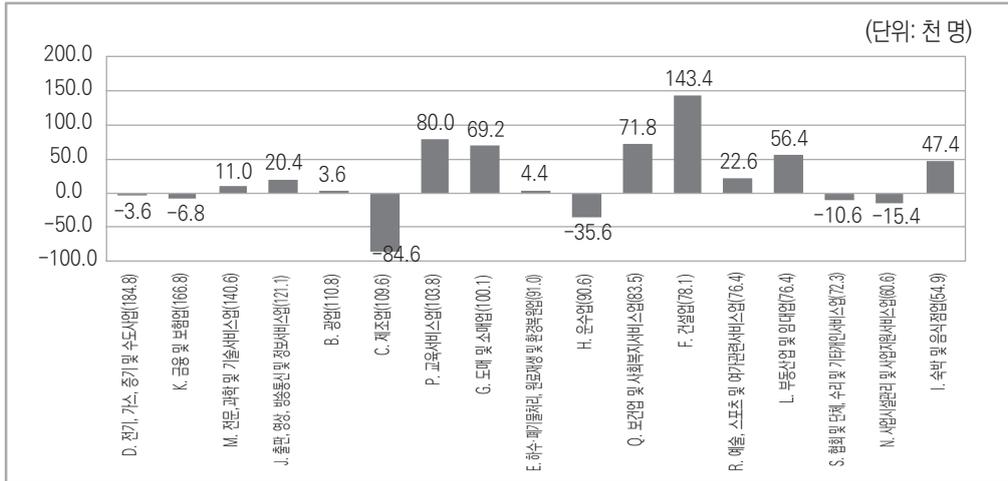
〈그림 I -15〉 15세 이상 인구 증감 구성



자료: 한국은행

- 하지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져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1~5월 중 전산업임금평균 하위 업종들의 취업자 수는 약 284만 명 증가한 반면 상위 업종의 취업자는 89만 명 증가에 그침

〈그림 I -16〉 산업별 취업자 증감(2016.1~5 → 2017.1~5)



주: ( ) 내 수치는 2016년 산업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100)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연령별) 취업자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청년(15~29세) 및 50~59세에서 개선된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악화
  - 15~29세: 2017년 1~5월 중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하락
  - 50~59세: 동기간중 취업자 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하락
  - 30~49세: 동기간중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
  - 60세 이상: 동기간중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상승, 이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인

〈표 1-2〉 연령별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2016.1~5 → 2017.1~5)

(단위: 천 명, %)

취업자 증감	계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2016. 1~5	275	47	-21	-14	82	182
2017. 1~5	376	22	-20	-46	159	261
실업률	계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2014. 1~5	3.9	9.6	3.3	2.4	2.3	3.4
2015. 1~5	4.0	10.1	3.2	2.5	2.6	3.4
2016. 1~5	4.1	10.9	3.2	2.4	2.5	3.5
2017. 1~5	4.2	10.5	3.6	2.5	2.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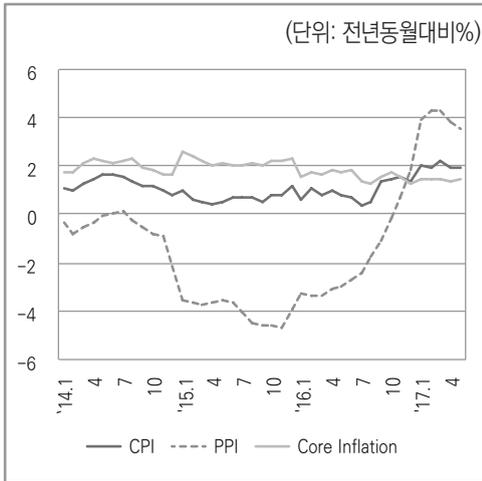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4. 물가

### ■ 소비자물가는 1/4분기 2.1%에서 4~5월 중 1.9%로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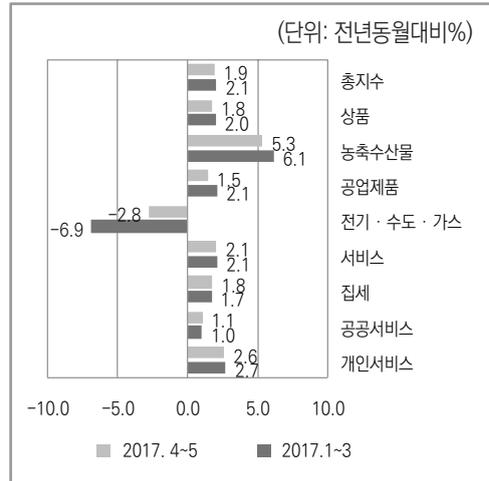
- 서비스부문은 2.1%의 증가율을 지속했으나, 상품부문의 증가율이 2.0%에서 1.8%로 둔화된데 기인
  - 이는 1/4분기 상품부문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가격이 각각 계절적 요인과 원유 등의 안정세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된데 기인
  - ✓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상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등으로 인해 1/4분기 6.1% 증가했으나 4~5월 중에는 일부품목 출하 증가로 증가율 5.3%로 둔화
  -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도 물가오름세 둔화에 기여
- 공급측 요인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1/4분기 1.4%에서 4~5월에도 1.4%의 낮은 증가율을 지속

〈그림 I-17〉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8〉 품목성질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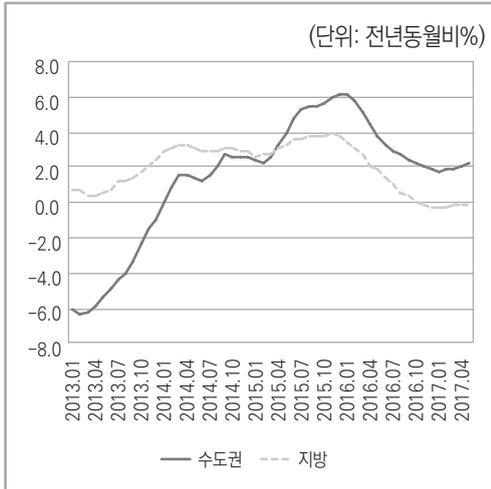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반등 전환한 반면 전세가격 하락세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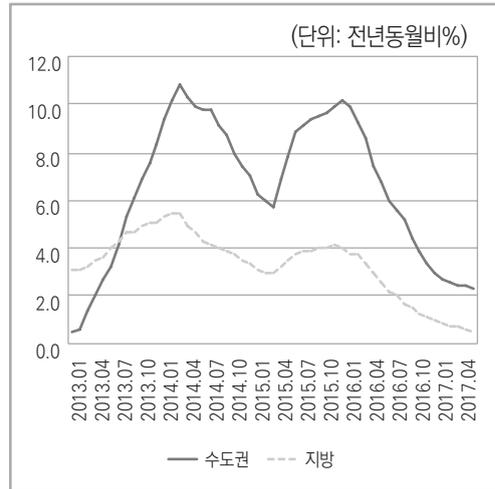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 1월을 저점으로 수도권은 증가율 상승, 지방은 감소세 완화
  - 수도권(전년동월대비): 6.2%('15. 12) → 1.7%('17. 1) → 2.2%('17. 5)
  - 지방(전년동월대비): 3.9%('15. 11) → -0.3%('17. 1) → -0.2%('17. 5)
-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수도권, 지방 모두 2015년 말 이후의 하락세 지속. 2017년 5월 현재 각각 2%대, 0%대 증가율 보임
  - 수도권(전년동월대비): 10.1%('15. 12) → 3.0%('17. 1) → 2.3%('17. 5)
  - 지방(전년동월대비): 4.1%('15. 11) → 0.9%('17. 1) → 0.5%('17. 5)

〈그림 I -19〉 아파트매매가격



자료: 통계청

〈그림 I -20〉 아파트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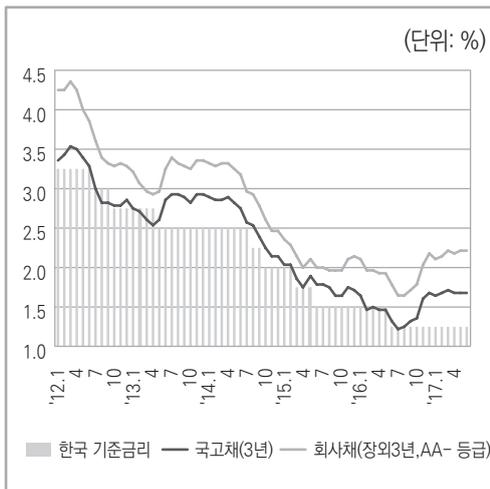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5. 금리와 환율

- 시장금리, 美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우량채 선호 등으로 지난해 연말 수준에서 등락
  -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올 6월까지 3차례 인상되었음에도 국내 시장금리는 동기간 소폭 등락에 그치며 거의 변하지 않음
    - 회사채(3년, AA-): 2.17%(16.12.15) → 2.20%(17.3.16) → 2.21%(17.6.15) → 2.22%(17.6.23)
  - 이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 국채 및 우량 회사채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줌
    - 6월 FOMC 이전까지 주요 IB들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치는 여전히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단기금리인 CD금리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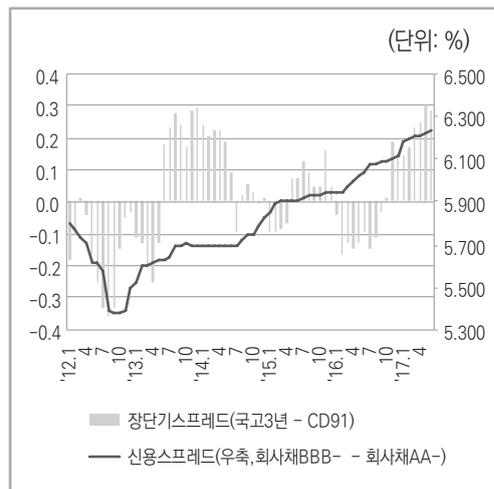
- CD(91일): 1.54%(’16.12.15) → 1.48%(’17.3.16) → 1.38%(’17.6.15) → 1.38%(’17.6.23)
- 회사채 AA- 등급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수익률이 낮게 유지된 반면 투자적격 최하위인 BBB- 등급의 수익률은 상승하면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모습
- 회사채(3년, BBB-): 8.29%(’16.12.15) → 8.40%(’17.3.16) → 8.45%(’17.6.15) → 8.46%(’17.6.23)

〈그림 I -21〉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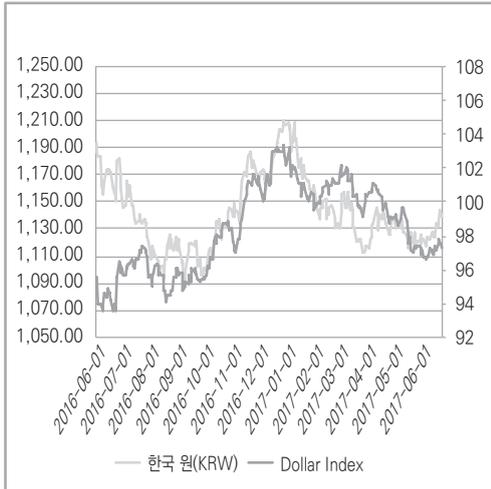
〈그림 I -22〉 장단기 및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미국 금리 인상을 전후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상반기 중 추세적 하락기조 유지
-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실행 및 경기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달러가 상반기 내내 약세기조를 보인 반면 한국의 수출회복세 가시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달러 인덱스: 102.21(’16.12.30) → 100.35(’17.3.31) → 97.26(’17.6.23)
  - 원화강세 및 국내 경제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들어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지속

〈그림 1-23〉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그림 1-24〉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제II장

#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경제 성장
  - (2) 국제 유가
  - (3) 주요국 환율
2. 2017년 국내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2) 경상수지
  - (3) 물가
  -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 1. 대외 여건

## (1) 세계경제 성장

- (세계경제) 선진국의 산업활동 호조, 투자지출 확대, 신흥국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IMF는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5%로 0.1%p 상향조정)
- (선진국) 미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 및 일본경제도 1%대의 빠른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선진국 성장률 0.1%p 상향
  - (미국) 트럼프 관련 스캔들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여건의 개선 및 고정자산 투자의 회복 등 성장기반 형성으로 성장세 2%대 유지가 가능할 전망
  - (유로지역) 프랑스대선과 독일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소비와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올 성장률 0.1%p 상향된 1.7%로 전망
  - (일본)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0.4%p 상향조정되며 올해에는 1%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
  - ✓ 최근 20년래 최저수준의 실업률(4월 2.8%), 주택 착공 증가 지속 등으로 그동안 부진하던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신흥국) 브라질 · 러시아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고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민간소비와 인프라투자 확대 및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중국) 부동산 시장과 기업부채 관련 구조조정으로 하방리스크는 존재하나 소비증가와 수출회복세가 기대되면서 성장률 전망치 0.1%p 상향

〈표 11-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sup>1)</sup>	2017. 4월 현재 전망치		2017. 1월 전망치와 비교(%p)	
		2016	2017	2018	2017
<b>세계</b>	<b>3.1</b>	<b>3.5</b>	<b>3.6</b>	<b>0.1</b>	<b>0.0</b>
선진국	1.6	2.0	2.0	0.1	0.0
미국	1.6	2.3	2.5	0.0	0.0
영국	2.0	2.0	1.5	0.5	0.1
유로존	1.7	1.7	1.6	0.1	0.0
- 독일	1.7	1.6	1.5	0.1	0.0
- 프랑스	1.3	1.4	1.6	0.1	0.0
- 이탈리아	0.9	0.8	0.8	0.1	0.0
일본	0.9	1.2	0.6	0.4	0.1
신흥개도국	4.1	4.5	4.8	0.0	0.0
중국	6.7	6.6	6.2	0.1	0.2
인도	6.6	7.2	7.7	0.0	0.0
브라질	-3.5	0.2	1.7	0.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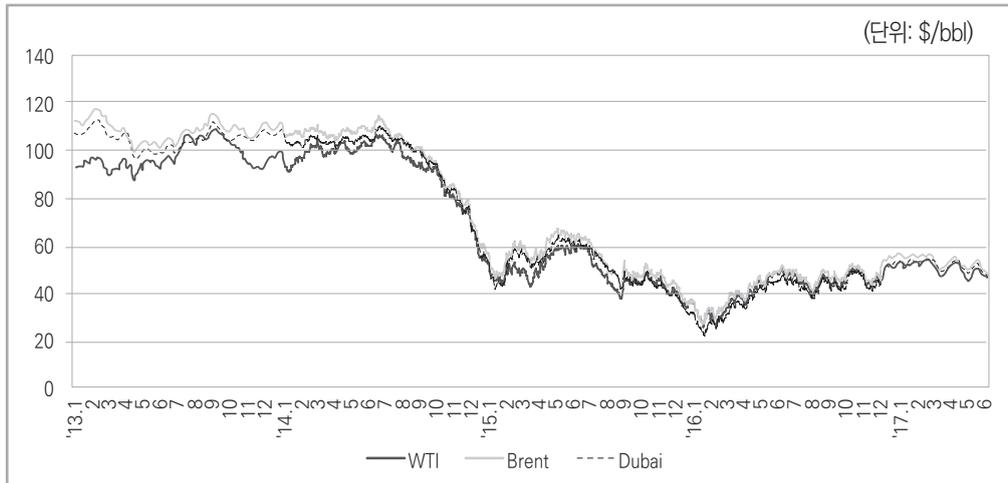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7)

## (2) 국제 유가

- '16년 초 이후로 대세적 상승을 통해 두바이유 기준 50달러 대를 돌파해 올해 1~2월 55달러까지 올라서는 듯 했으나 3월 이후 작은 등락을 거듭하며 올해 6월초 기준으로 50달러 선을 유지
- 리비아의 원유생산 증가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그리고 OPEC의 생산증가가 원유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전 세계적인 수요증가와 재고감소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선을 유지
  - 두바이유 가격(달러): 45.44('16. 6/1) → 38.64(7/29) → 50.07(10/7, 연중최고) → 54.65('17. 1/3) → 53.68(3/3) → 49.68(5/3) → 50.16(6/1)

1) 2016년 GDP 잠정치만 나온 국가가 대부분으로, 향후 확정치가 나올 때까지 수정이 가능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수요공급) 2017년 수요와 공급의 동반증가로 수급균형에 근접하겠으나 2018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전망
- EIA 등 주요 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2017년 석유 수요량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해 증가세가 지속되어 작년보다 149만 bbl/d 증가한 9,816만 bbl/d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7년 석유 공급량은 5월중 OPEC 증산 합의와 미국 석유 생산량 증가세 전환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114만 bbl/d가 증가한 9,831만 bbl/d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11-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bl/d)

구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평균	평균
수요	96.9	96.8	98.2	99.4	99.3	98.4	100.8
공급	97.1	96.8	97.8	99.0	99.4	98.3	100.1
OPEC 공급(원유)*	39.0	38.6	39.0	39.5	39.6	39.2	39.8
비OPEC 공급	70.6	70.4	70.9	71.5	71.3	70.9	71.5
재고변동(공급-수요)	-0.25	0.01	0.25	0.43	-0.05	0.15	-0.09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2017. 6월)

- (투기요인) 작년 하반기 유가가 대세적 상승을 지속하면서 투기 매수세가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당분간 유가 안정세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
  - 유가가 소폭 상승할 때마다 차익성 매도로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치적 리스크) 아랍 7개국과 카타르의 단교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재 및 유럽지역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능성 등은 유가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
  -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7개국과 카타르의 단교사태에 대하여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선 반면 트럼프정부가 단교에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 상존
  - 한편, 런던, 파리, 브뤼셀 등 유럽 주요 도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연이은 테러로 종교 및 민족 갈등도 계속될 전망
- (유가전망 종합) 글로벌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그 이상 상승할 여지가 많아 향후 유가의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 미 달러화 강세 전환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를 상한선으로 하방압력이 높을 전망

- (수요공급) 2017년 석유 공급량 증가에 동반한 수요증가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으나 셰일오일 등 미국의 추가적인 증산 가능성 등이 상존해 공급우위의 시장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
  - 셰일오일 등 미국의 추가적인 증산, 글로벌 재고과잉 지속, OPEC의 시장점유율 경쟁 재개 등으로 초과공급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
- (투기요인) 유가 상승 가능성이 적어 현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매도세에 투기가 몰리며 가격을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 존재
- (정치적 리스크)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의 정정불안이 예상되지만 올해의 석유 시장은 수요공급상황 및 미국의 금리 및 에너지 정책이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15 평균	2016					2018
			1Q	2Q	3Q	4Q	평균	평균
EIA (6.6)	WTI	43.3	51.6	49.8	51.6	50.0	50.7	53.6
BBG (3.20)	Dubai	41.4	51.3	52.0	52.7	52.2	53.0	56.5
EIA (6.6)	Brent	43.7	53.5	51.5	53.6	52.0	52.6	55.6

주: EIA(美 에너지정보청), Bloomberg crude oil forecast

자료: EIA, Bloomberg

### (3) 주요국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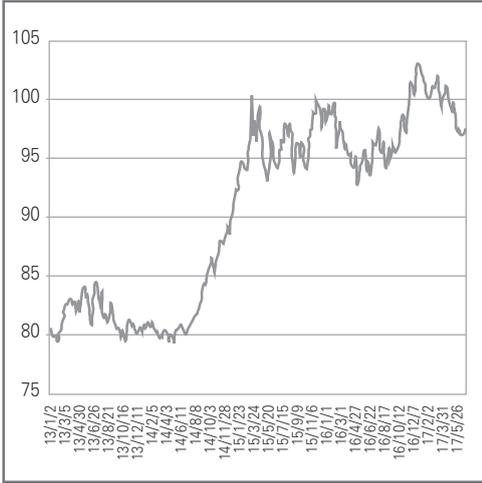
- (주요국 환율) 2017년 상반기 달러 약세현상이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전망됨. 이에 따라 엔화와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유로화는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통합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다소 강세를 보일 전망
- (미달러)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의구심, 러시아스캔들 확산 등으로 약세기조를 이어 가던 달러화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으로 더 이상의 추가 약세는 어려울 전망
- (중국위안)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자본유출 규제 강화 등으로 약세기조가 완화 되었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무디스(Moody's)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다시 약세압력을 받을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중국 A주의 MSCI지수 편입 등으로 점차 강세로 전환될 전망
- (일본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가 증가했으나 통화완화 기조 유지,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 전망
- (유로) 유로지역 경제지표 호조 및 佛 마크롱의 당선 등 정치적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

〈표 II-4〉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위안/달러	6.9110	6.9767	6.9880	7.0014
엔/달러	112.9	114.00	113.00	110.38
달러/유로	1.1136	1.1210	1.1300	1.1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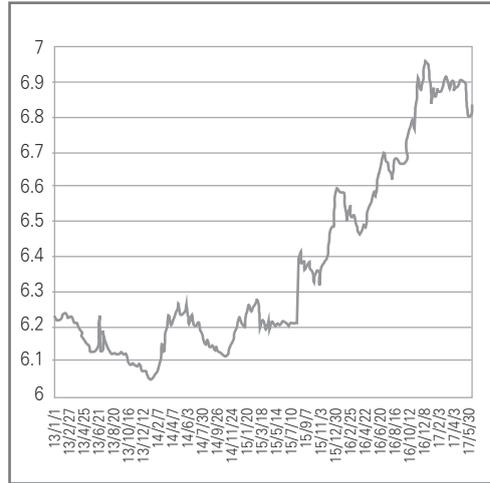
주: JP모건 외 14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값 참조, 6/23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II-2〉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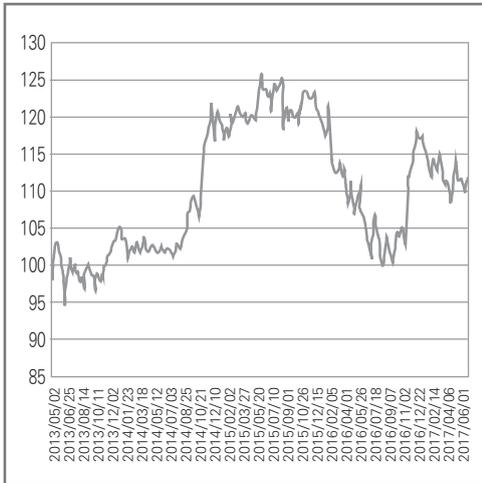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II-3〉 위안/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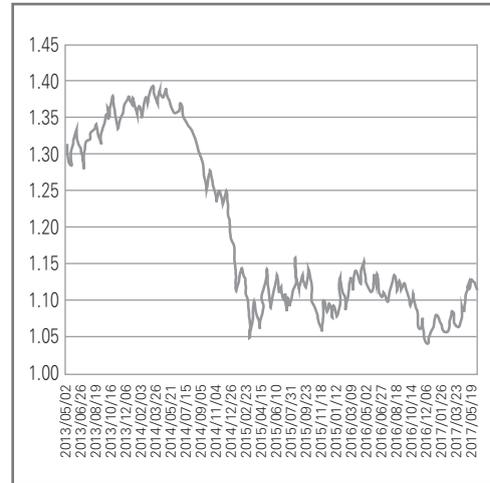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II-4〉 엔/달러 환율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II-5〉 달러/유로 환율



자료: 국제금융센터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5〉 전망의 주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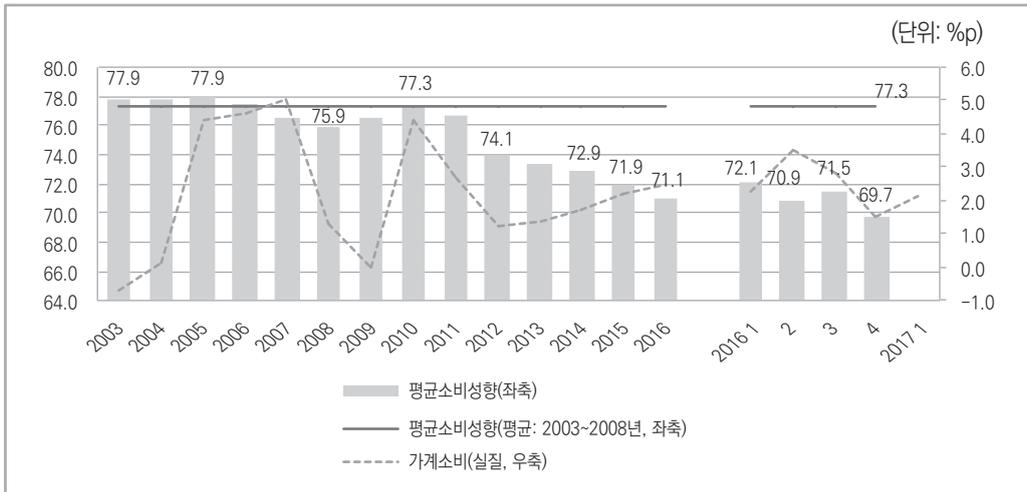
	2016년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3.1%	3.5%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42달러/배럴	50달러/배럴

## 2. 2017년 국내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민간소비: 2016년 2.5% → 2017년 1.9%(상반 2.0%, 하반 1.9%)
  -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평균소비성향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소득 악화, 금리상승에 따른 본격적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낮은 소비증가율에 그칠 전망
    - 가계평균소비성향은 하락추세를 지속하며 지난해 4/4분기에는 60%대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평균 77.3% 대비 7.6%p 낮은 수준

〈그림 II-6〉 가계평균소비성향과 가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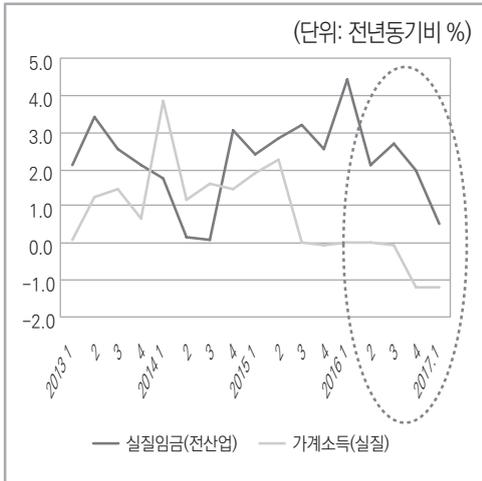
주: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100/처분가능소득

자료: 한국은행

- 전산업 실질 임금도 지난해 2분기 이후 둔화되면서 올 1분기에는 0.5% 증가에 그쳤으며 가계소득(실질) 증가율은 정체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4/4분기와 1/4분기 모두 -1.2%를 보임
-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주었으나 올 들어서는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계가 이자부담<sup>2)</sup>을 본격적으로 체감하면서 가계소비의 추가 위축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3.17%('16. 11) → 3.23%('17. 4)
- 가계부채 부담 본격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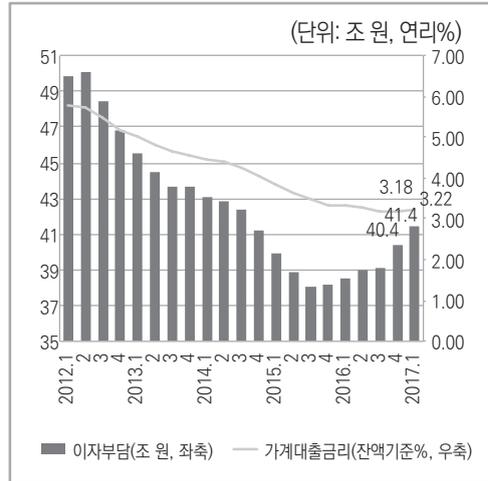
2) 이자부담은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에 가계대출금액을 곱하여 추정

〈그림 11-7〉 최근 가계 소득 현황



주: 실질임금상승률=명목 임금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8〉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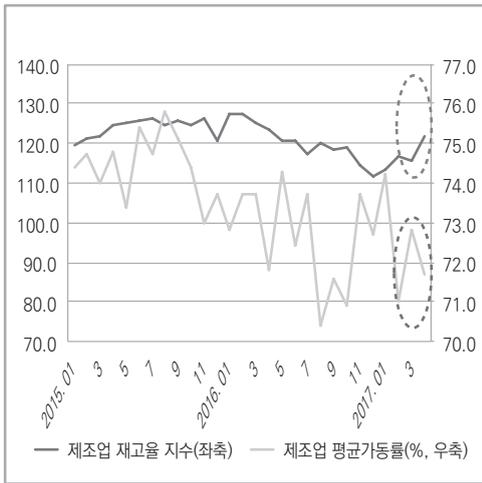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설비투자: 2016년 -2.3% → 2017년 6.5%(상반 10.4%, 하반 2.7%)
-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등 IT부문 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수요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6%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전년 대비 큰 폭 증가가 예상됨
  -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2010년 이후(2010년 1분기 ~ 2017년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t=0)과 수출증가율(t=2)의 상관계수는 0.68로 높은 상관성을 보임
  - 특히 상반기 수출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이 주도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또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하반기에는 시장금리상승기조, 최근 설비투자 압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서는 둔화될 가능성

- 연초 이후 평균가동률이 다시 하락하고 재고율 지수도 다시 상승하는 등 제조업 설비투자 압력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높여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기업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정책적 불안감으로 인해 보수적인 투자가 예상
- 기업들의 업황 전망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에도 설비투자전망은 여전히 방향성 없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II-9〉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그림 II-10〉 BSI(업황 및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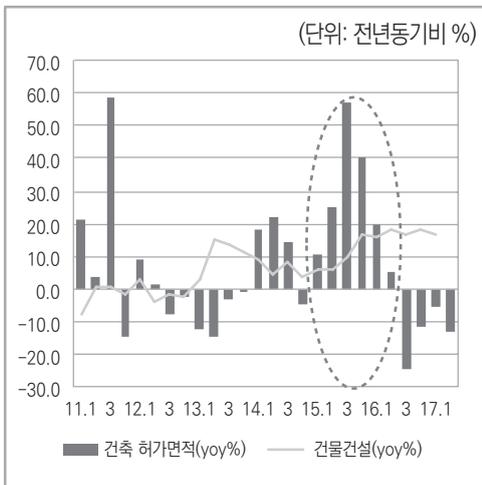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 2016년 10.7% → 2017년 5.3%(상반 8.3%, 하반 2.7%)
- 지난 2년간 증가한 건축허가 면적이 올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 이어 올해도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주택경기 조정,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낮아질 전망
  - 건설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축소, 신정부의 주택경기 과열 대책 등으로 건물건설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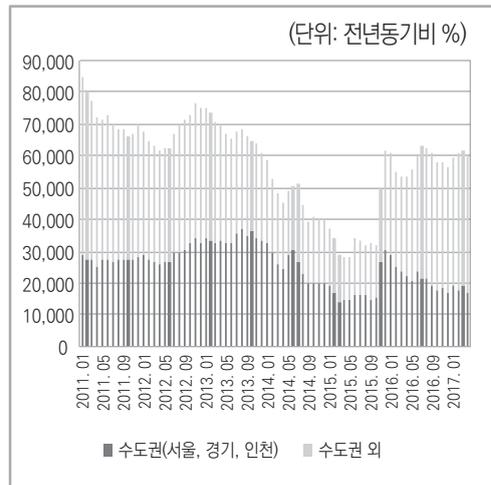
- ✓ 지난해 과잉공급 우려 때문에 인허가 물량을 축소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면서 연말부터는 건축 허가면적이 감소세로 전환
  - ✓ 신 정부가 내 놓은 6.19 대책은 시장에서 예상보다 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정책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국면의 제약은 불가피
  - ✓ 실제로 미분양 추이를 보면 지방은 확대추세, 수도권도 감소세가 멈춘 모습.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올 4월부터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
  - 2017년 SOC 예산 축소 편성으로 공공토목 부문도 감소 불가피
  - ✓ 전체 건설발주의 약 28%(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발주가 감소하면서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와 건축허가간의 시차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 건설투자와 건축허가간의 상관계수는 대략 4~6분기 정도의 시차가 존재. 이를 고려할 때 즉, 2016년 하반기 이후 건축 허가면적의 큰 폭 둔화는 2017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됨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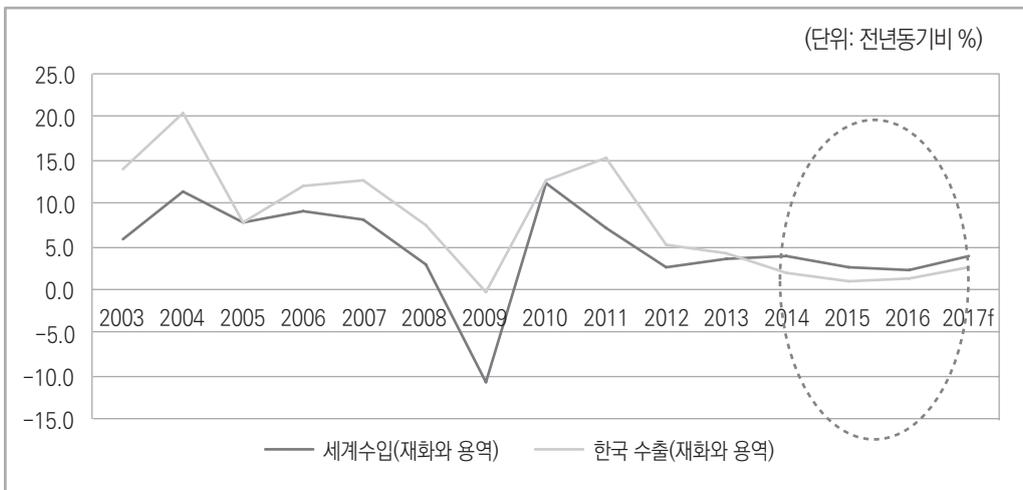
〈그림 II-12〉 미분양 추이



자료: 통계청

- 실질수출: 2016년 2.1% → 2017년 3.0%(상반 3.6%, 하반 2.3%)
- 2017년 수출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2016년보다 높은 증가율 기록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회복으로 신흥국 경기도 개선.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은 올 3%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
  - 수출단가도 지난해 4/4 이후 플러스로 반등하면서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가격 민감 업종 중심의 높은 수출회복세가 예상
  - 하지만 최근의 수출호조가 우리의 수출경쟁력 제고가 아닌 일시적일 수도 있는 대외여건의 개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임
  - ✓수출주도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실질수출증가율이 2014년 이후 세계 수입 증가율을 장기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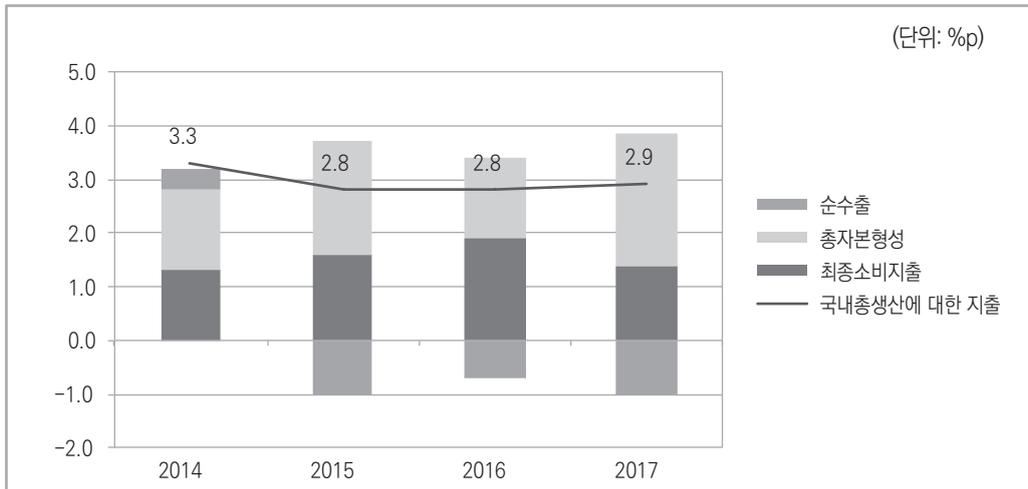
〈그림 II-13〉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세계교역량



자료: IMF, 한국은행

- 하반기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원화의 엔화대비 상대적 강세, 수출단가 회복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국내 정치 이슈가 진정되는 대로 당초 공약에 따라 대미 흑자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압박이 예상됨
  - 美 연준, 유럽중앙은행(ECB)과는 달리 일본은행의 통화완화기조의 지속 의지로 엔화가 약세기조를 보이면서 원화의 엔화대비 상대적 강세가 예상
  - 또한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수출단가의 효과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 데 최근 국제유가 하락 불안도 단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GDP 성장률: 2016년 2.8% → 2017년 2.9%(상반 2.9%, 하반 2.8%)
  
-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 건설 등 투자가 내수를 견인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성장률은 지난해(2.8%)보다 높은 2.9%를 보일 전망
  - 통화, 환율, 재정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지원 역할은 제한적일 전망
  - ✓ 통화정책: 전년 12월, 올 3월, 6월 등 6개월여만에 3차례의 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인하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 다만 가계부채 부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음
  - ✓ 환율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원화 절상의 경우 대응수단에 제약
  - ✓ 재정정책의 경우, 2017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하도록 편성된데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분야가 축소됨으로써 경기확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하반기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위주의 추경 편성이 내수부진의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됨
  
- 2017년 부문별 성장 기여도는 2016년에 비해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기여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순수출의 기여도는 수입증가 확대의 영향으로 마이너스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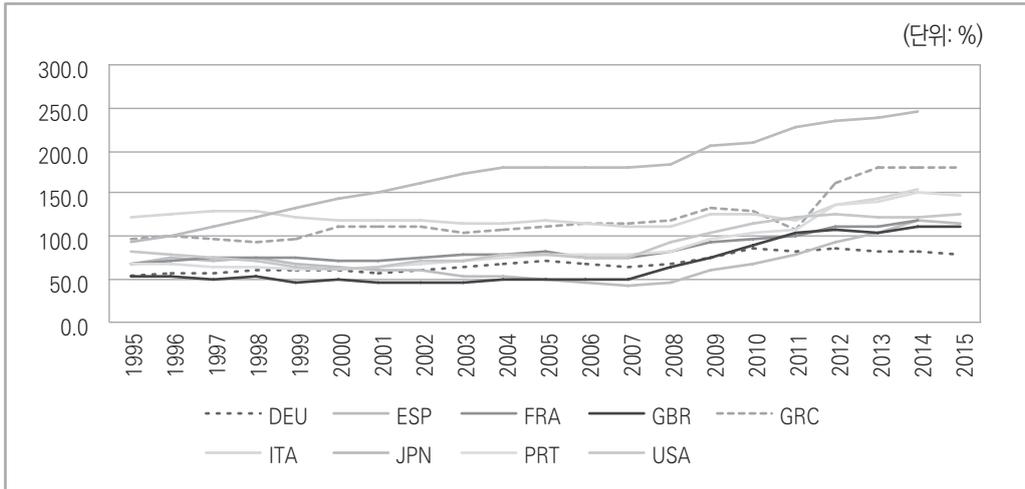
〈그림 II- 14〉 GDP 지출항목별 기여도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요인들이 올 성장률 전망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과다 부채, 고령화, 생산성 하락세 등은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요인
  -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관건이지만 2008년 이후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태여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는 쉽지 않음
  -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유럽 등 일부국가에서의 반세계화 흐름 등이 글로벌 교역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TPP 철회와 NAFTA 재검토,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환율절상압박, 관세 인상 등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추진은 글로벌 교역과 성장을 약화시킬 우려

〈그림 II-15〉 주요국 국가부채비율(국가부채/G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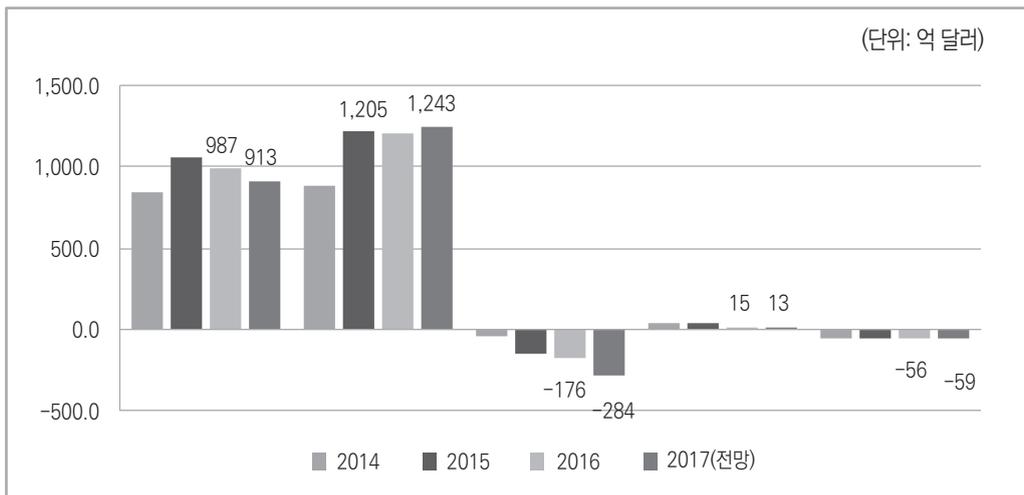
자료: IMF

##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2016년 987억 달러 흑자 → 2017년 913억 달러 흑자(상반 484억 달러, 하반 430억 달러)
-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2016년 987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913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 흑자는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2016년 1,20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243억 달러로 소폭 증가
  - ✓ 수출(BOP 기준): 2016년 -5.7% → 2017년 12.8%(상반 19.0%, 하반 7.1%)
  - ✓ 수입(BOP 기준): 2016년 -7.0% → 2017년 15.8%(상반 22.7%, 하반 9.7%)
  - 서비스수지는 주요 부문 수지 악화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2016년 176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84억 달러로 확대
  - ✓ 여행수지는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중국 관광객 유입 둔화의 영향으로 적자 확대
  - ✓ 운송수지는 해운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수지는 중동 국가들의 재정악화의 파급효과로 흑자 축소

- ✓ 사업서비스수지는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낮아 적자 지속
- 하반기, 흑자규모는 상반기 대비 소폭 줄어들 전망
  - 상반기 484억 달러 흑자 → 하반기 430억 달러 흑자
- ✓ 사드보복 강도가 점차 약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줄어들겠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

〈그림 II-16〉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II-6〉 서비스수지 항목별 추이

(단위: 월평균, 백만 달러)

	2015	2016(A)	2017. 1~4(B)	(A)-(B)
여행수지	-838	-786	-1247	-461
운송수지	386	-52	-388	-335
기타사업서비스수지	-802	-739	-1049	-310
건설수지	804	724	508	-216
가공서비스수지	-508	-455	-532	-76
정부서비스수지	-24	-30	-46	-16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수지	59	70	55	-15
개인, 문화, 여가서비스수지	19	39	24	-14
금융서비스수지	-6	5	-1	-5
유지보수서비스수지	-3	0	0	0
보험서비스수지	-8	-20	10	29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321	-222	-145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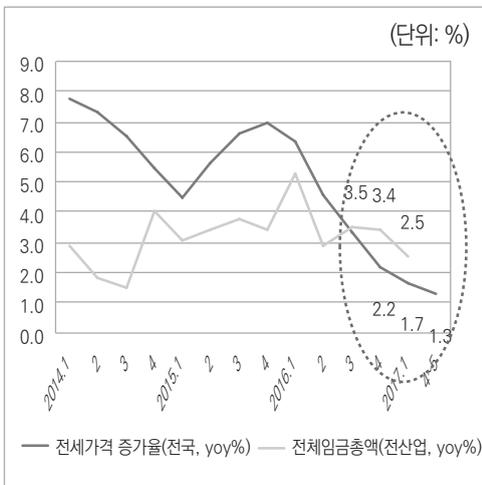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물가

- 소비자물가: 2016년 1.0% → 2017년 1.8%(상반 2.0%, 하반 1.6%)
- 전반적인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유가상승, 계절 및 일시적 요인(기상악화 및 조류독감) 등 상반기 물가상승 요인들이 약화되면서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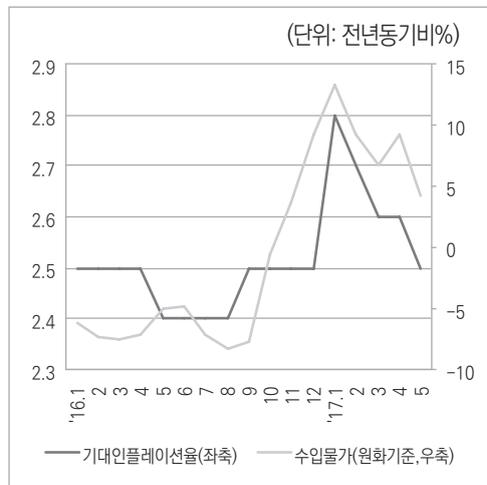
- ✓ 수요측 상승압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GDP갭<sup>3)</sup>은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전세가격, 임금 상승률 등이 둔화되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다시 낮아지는 등 경제내 물가상승 모멘텀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II-17〉 전세가격, 임금증가율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그림 II-18〉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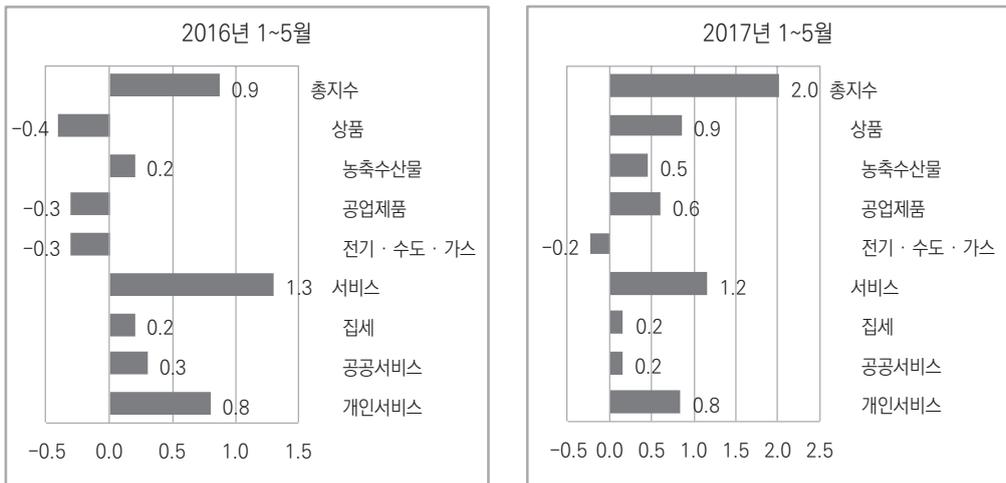
- 유가의 경우, OPEC 감산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美 셰일오일 생산증대, 美 금리 인상 본격화 등 불안 변수가 상당해 기존 50달러대의 상단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
- ✓ 최근 유럽 및 미국의 석유재고 증가 추세는 OPEC의 감산 효과가 원유 공급과잉 해소에 충분치 않음을 보여줌
- ✓ 비용하락에 힘입은 美 셰일오일 생산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사용확대 및 수출허용 등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해소가 쉽지 않음

3) GDP 갭(gap)은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gap)를 말함. GDP 갭이 플러스이면 실제 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갭(Inflation Gap)상태가 되고 반대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의미이므로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 상태가 됨

- ✓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달러 강세 기대감으로 원유에 대한 투  
기적 수요 감소
- 농축수산품의 경우, 상반기 기상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은 일회성 요인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다시 약화될 것으로 보임
- ✓ 1~5월중 농축수산품 물가상승 기여도를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올해 0.5%p  
로 전년(0.2%)대비 0.3%p 상승. 이 부분이 계절 및 일시적 요소와 관련

〈그림 II-19〉 소비자물가 품목성질별 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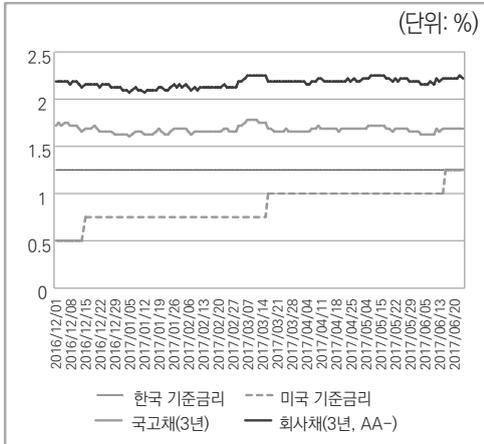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6년 1.9% → 2017년 2.3%(상반 2.2%, 하반 2.4%)
- 하반기부터는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이 본격적으로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12월, 올 3월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고채, 회사채 등 시장금리가 거  
의 변화하지 않은 것은 한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
  - 하지만 이번 6월 FOMC 회의 전후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한국의 기준금리 전  
망치를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거의 없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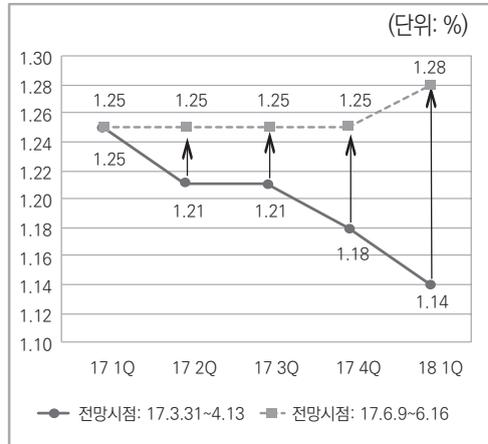
-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한국과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한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그림 II-20〉 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1〉 주요 투자은행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해외 IB(Barclays, Citi, Goldman Sachs, HSBC, JPMorgan, Morgan Stanley, USB) 평균

- 하지만 한국 기준금리 연내 동결, 물가 및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의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대내적으로 가계 이자부담 증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한국 기준금리 연내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장금리를 구성하는 기간 프리미엄의 경우, 성장률 및 물가오름세 둔화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
  -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인플레이션 및 성장세에 감속 전망이 높아 시장금리의 상승을 제약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2016년 1,161원 → 2017년 1,146원(상반 1,142원, 하반 1,150원)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요인을 달러 강세요인이 상쇄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1,150원대를 보일 전망

- 기본적으로 수출회복 지속,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 공급 우위,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경계감 등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
  - ✓ 상반기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수출은 글로벌 수요회복세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약 7%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전망
  - ✓ 국가신용등급, 순국제투자, 단기외채비율 등 한국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은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낮춰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제약
  - ✓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의식한 당국 및 시장의 경계감도 원화 약세를 제약하는 요인. 즉 미국의 대외 불균형 해소, 미국 수출 제조업 부양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원화 강세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 트럼프노믹스 본격 추진 등으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
  - ✓ 상반기까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더구나 프랑스 대선 등 극우정당의 퇴조로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이 개선된 것도 달러 약세에 일조
  - ✓ 하지만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것은 달러강세로의 회귀 요인
  - ✓ 상반기 중 미 국내정치 불안으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정 부양, 보호무역 확대, 금융규제 완화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달러 강세는 상승탄력을 받을 전망
- 연간으로는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으로 글로벌 달러강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회복,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년(1,161원)보다 낮은 1,146원을 보일 전망

〈표 II-7〉 2017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8	2.8	2.9	2.8	2.9
민간소비	2.2	2.5	2.0	1.9	1.9
건설투자	6.6	10.7	8.3	2.7	5.3
설비투자	4.7	-2.3	10.4	2.7	6.5
수출(재화+서비스)	-0.1	2.1	3.6	2.3	3.0
수입(재화+서비스)	2.1	4.5	8.1	3.7	5.9
소비자물가	0.7	1.0	2.0	1.6	1.8
생산자물가	-4.0	-1.8	3.8	2.4	3.1
경상수지(억 달러)	1,059.4	986.8	483.6	429.9	913.4
상품수지(억 달러)	1,222.7	1,204.5	675.2	567.8	1,243.0
수출(억 달러, BOP 기준)	5,428.8	5,117.8	2,933.3	2,841.6	5,774.9
증가율(%)	-11.4	-5.7	19.0	7.1	12.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06.1	3,913.3	2,258.1	2,273.8	4,531.9
증가율(%)	-19.8	-7.0	22.7	9.7	15.8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3.3	-217.7	-191.6	-137.9	-329.6
환율(원/달러, 평균)	1,130.9	1,160.9	1,141.6	1,149.5	1,145.6
회사채수익률(3yrs, AA-)	2.1	1.9	2.2	2.4	2.3
실업률(%)	3.6	3.7	4.1	3.4	3.8
취업자증감(천 명)	337.0	299.0	294.2	299.5	313.9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자료: 한국은행



부록

##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1인당 GNI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US \$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건설	설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년	22,105	6.5	13.7	4.4	3.8	5.5	-3.7	22.0
2011년	24,226	3.7	6.5	2.9	2.2	0.8	-3.4	4.7
2012년	24,600	2.3	2.4	1.9	3.4	-0.5	-3.9	0.1
2013년	26,070	2.9	3.6	1.9	3.3	3.3	5.5	-0.8
2014년	27,892	3.3	3.5	1.7	3.0	3.4	1.1	6.0
2015년	27,171	2.8	1.8	2.2	3.0	5.1	6.6	4.7
2016년	27,561		2.3		4.3	5.2	10.7	-2.3
2010년1/4		7.3	16.1	6.8	4.1	43.2	1.6	27.6
2/4		7.4	17.2	3.6	3.9	17.9	-4.8	28.8
3/4		5.4	10.1	4.0	3.4	8.7	-4.8	20.6
4/4		6.0	11.9	3.2	4.0	10.0	-5.1	12.9
2011년1/4		4.9	11.4	3.7	1.6	3.3	-8.2	8.3
2/4		3.6	6.5	3.7	1.8	11.9	-2.5	8.3
3/4		3.3	5.6	2.5	3.6	-2.2	-2.2	3.4
4/4		3.0	3.4	1.7	1.9	1.1	-2.0	-0.9
2012년1/4		2.5	2.7	1.6	4.4	5.6	-0.2	11.0
2/4		2.4	2.8	0.7	3.2	-4.9	-5.3	-1.9
3/4		2.1	2.0	2.6	3.1	-1.7	-2.6	-4.2
4/4		2.2	2.0	2.7	2.9	-7.0	-6.4	-3.8
2013년1/4		2.1	2.7	1.5	1.3	-7.3	1.2	-12.3
2/4		2.7	3.6	1.9	3.3	-4.1	8.9	-3.3
3/4		3.2	3.8	1.9	4.3	2.2	7.5	2.3
4/4		3.5	4.2	2.2	4.1	9.0	3.5	11.7
2014년1/4		3.8	4.7	2.8	3.2	3.8	4.5	7.5
2/4		3.5	4.7	1.7	1.9	5.9	0.3	8.0
3/4		3.4	3.1	1.4	3.8	7.6	2.3	4.3
4/4		2.7	1.8	1.0	3.4	3.8	-1.7	4.2
2015년1/4		2.6	1.1	1.5	3.0	5.9	4.0	5.4
2/4		2.4	0.9	1.7	3.0	6.5	4.6	4.3
3/4		3.0	2.2	2.2	2.6	7.7	7.6	6.0
4/4		3.2	2.7	3.4	3.3	8.8	9.6	3.1
2016년1/4			2.4	2.3	5.0	4.4	9.0	-4.6
2/4		3.4	2.7	3.5	4.3	5.8	10.6	-2.9
3/4		2.6	1.4	2.7	4.5	5.2	11.2	-3.9
4/4		2.4	2.7	1.5	3.6	5.6	11.6	2.0
2017년1/4			4.5	2.0	2.7	11.7	11.3	14.4

자료: 한국은행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10년	4,664	28.3	4,252	31.6	288.5	479.2	2,916	1,138.9
2011년	5,552	19.0	5,244	23.3	186.6	290.9	3,064	1,153.3
2012년	5,479	-1.3	5,196	-0.9	508.4	494.1	3,270	1,071.1
2013년	5,596	2.1	5,156	-0.8	811.5	827.8	3,465	1,055.3
2014년	5,727	2.3	5,255	1.9	843.7	888.9	3,636	1,099.2
2015년	5,268	-8.0	4,365	-16.9	1059.4	1222.7	3,680	1,172.0
2016년	4,954	-5.9	4,062	-6.9	986.8	1204.5	3,711	1,208.5
2015년1월	451.1	-1.0	392.8	-12.2	70.4	68.6	3,622	1,090.8
2월	414.7	-3.4	340.0	-19.2	63.1	70.6	3,624	1,099.2
3월	468.2	-4.6	384.9	-15.5	98.8	105.9	3,628	1,105.0
4월	462.2	-8.0	378.6	-17.5	72.5	118.5	3,699	1,068.1
5월	423.3	-11.0	360.4	-15.4	81.4	88.7	3,715	1,108.0
6월	465.5	-2.7	366.0	-13.8	115.6	129.5	3,747	1,124.1
7월	457.0	-5.2	386.5	-15.7	93.3	103.0	3,708	1,166.3
8월	391.1	-15.2	347.7	-18.7	82.1	88.5	3,679	1,176.3
9월	434.3	-8.5	345.4	-21.8	107.1	121.7	3,681	1,194.5
10월	433.5	-16.0	367.6	-16.6	95.8	109.7	3,696	1,142.3
11월	442.9	-5.0	340.5	-17.6	98.4	106.4	3,685	1,150.4
12월	423.8	-14.3	354.6	-19.2	81.0	111.6	3,680	1,172.0
2016년1월	362.6	-19.6	313.2	-20.3	71.8	81.9	3,673	1,208.4
2월	359.2	-13.4	291.6	-14.2	76.2	79.3	3,658	1,235.4
3월	430.0	-8.2	333.4	-13.4	105.5	128.4	3,698	1,153.5
4월	410.8	-11.1	323.9	-14.4	37.6	98.5	3,725	1,143.9
5월	397.3	-6.1	330.3	-8.4	104.9	108.6	3,709	1,190.6
6월	452.1	-2.9	338.9	-7.4	120.9	128.3	3,699	1,164.7
7월	408.8	-10.5	333.7	-13.6	84.1	106.7	3,714	1,125.7
8월	401.2	2.6	351.0	1.0	50.3	69.4	3,755	1,118.5
9월	408.5	-6.0	339.9	-1.6	80.7	106.6	3,755	1,096.3
10월	419.8	-3.2	350.5	-4.7	87.2	98.3	3,755	1,145.2
11월	453.1	2.3	372.4	9.4	88.9	104.3	3,755	1,168.5
12월	450.7	6.3	383.0	8.0	78.7	94.3	3,755	1,208.5
2017년1월	402.8	11.1	375.2	19.8	52.8	78.1	3,755	1,157.8
2월	431.8	20.2	361.5	23.9	84.0	105.5	3,755	1,132.1
3월	486.5	13.1	425.8	27.7	57.5	96.2	3,755	1,116.1
4월	508.7	23.8	380.0	17.3	40.0	119.3	3,755	1,130.1
5월	450.3	13.3	393.5	19.1			3,755	1,123.9

자료: 한국은행

물가·실업·이지율

	물가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sup>1)</sup>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원계열	(계절조정)		신M2	M3(Lf)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평균	기간평균	
2010년	3.8	2.9	3.7		9.1	8.7	8.2	4.66	2,051.0
2011년	6.7	4.0	3.4		1.6	4.2	5.3	4.41	1,825.7
2012년	0.7	2.2	3.2		6.1	5.2	7.8	3.77	1,997.1
2013년	-1.6	1.3	3.1		4.7	4.8	6.9	3.19	2,011.3
2014년	-0.5	1.3	3.5		4.0	6.6	7.0	2.98	1,915.6
2015년	-4.0	0.7	3.6		3.2	8.6	9.7	2.08	1,961.3
2016년	-1.8	1.0	3.7			7.3	8.1	1.89	2,026.5
2015년1월	-3.6	1.0	3.8	(3.6)	-13.6	8.0	8.4	2.36	1,949.26
2월	-3.6	0.6	4.6	(3.7)	21.8	8.0	8.6	2.30	1,985.80
3월	-3.7	0.5	4.0	(3.6)	4.8	8.3	9.3	2.13	2,041.03
4월	-3.6	0.4	3.9	(3.7)	2.9	9.0	10.0	1.99	2,127.17
5월	-3.5	0.6	3.8	(3.8)	4.4	9.3	10.3	2.12	2,114.80
6월	-3.6	0.7	3.9	(3.8)	3.1	9.0	10.5	2.01	2,074.20
7월	-4.0	0.7	3.7	(3.7)	3.0	9.3	10.6	2.00	2,030.16
8월	-4.5	0.7	3.4	(3.6)	-0.6	9.2	10.4	1.98	1,941.49
9월	-4.6	0.5	3.2	(3.5)	7.2	9.4	10.5	1.95	1,962.81
10월	-4.6	0.8	3.1	(3.5)	0.1	8.8	10.2	1.96	2,029.47
11월	-4.7	0.8	3.1	(3.5)	1.6	7.7	9.2	2.12	1,991.97
12월	-4.0	1.1	3.2	(3.5)	8.4	7.5	8.9	2.14	1,961.31
2016년1월	-3.3	0.6	3.7	(3.5)	4.7	8.1	8.9	2.09	1,912.06
2월	-3.4	1.1	4.9	(4.0)	11.1	8.3	8.9	1.95	1,916.66
3월	-3.3	0.8	4.3	(3.8)	1.7	7.8	8.6	1.98	1,995.85
4월	-3.0	1.0	3.9	(3.7)	4.0	7.0	8.0	1.94	1,994.15
5월	-3.0	0.8	3.7	(3.7)	3.2	6.7	7.7	1.91	1,983.40
6월	-2.7	0.7	3.6	(3.6)	1.5	7.1	7.9	1.79	1,970.35
7월	-2.5	0.4	3.5	(3.6)	3.0	6.9	7.6	1.65	2,016.19
8월	-1.8	0.5	3.6	(3.8)	2.8	7.2	8.0	1.65	2,034.65
9월	-1.1	1.3	3.6	(3.9)	1.6	6.9	7.8	1.70	2,043.63
10월	-0.1	1.5	3.4	(3.8)	6.1	7.1	8.1	1.78	2,008.19
11월	0.7	1.5	3.1	(3.6)	7.2	7.3	8.2	2.02	1,983.48
12월	1.8	1.3	3.2	(3.5)	-0.2	7.5	8.1	2.16	2,026.46
2017년1월	3.9	2.0	3.8	(3.6)	20.3	6.9	8.0	2.10	2,067.57
2월	4.3	1.9	5.0	(4.0)	-17.4	5.9	7.4	2.13	2,091.64
3월	4.3	2.2	4.2	(3.7)	3.1	6.2	7.3	2.21	2,160.23
4월	3.8	1.9	4.2	(4.0)		6.6	7.4	2.20	2,205.44
5월	3.5	2.0	3.6	(3.6)	6.7			2.22	2,347.38

주: 1) 평잔기준  
자료: 한국은행

### 산업활동

	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제조업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sup>2)</sup>	국내기계 수주 <sup>3)</sup>	설비 투자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대비(%)	
								공공	민간
2010년	16.3	80.3	6.7	6.9	25.8	-17.7	2.7	8.5	0.6
2011년	6.0	80.5	4.5	9.5	3.5	6.1	-0.6	-0.1	-2.2
2012년	1.3	78.5	2.5	-11.7	-2.8	-6.2	-3.3	-3.7	-2.0
2013년	0.7	76.5	0.7	6.6	-0.8	-12.9	10.6	1.9	18.0
2014년	0.2	76.1	2.0	16.1	5.2	16.3	0.4	-7.1	4.5
2015년	-0.3	74.5	4.1	-2.6	6.9	48.4	4.2	-3.1	7.9
2016년	1.0	72.6	4.3	2.5	-1.3	8.4	16.9	-0.4	24.3
2015년1월	1.7	74.4	-2.3	37.0	14.8	35.6	0.0	-10.7	7.1
2월	-5.0	74.7	6.4	3.0	3.6	-3.5	3.1	-3.9	6.8
3월	0.3	74.0	3.5	-23.5	11.2	152.1	0.6	-5.1	4.0
4월	-1.9	74.8	6.3	24.9	3.0	21.3	-6.6	-9.0	-6.3
5월	-2.7	73.4	4.2	16.6	-0.3	85.3	-2.4	-8.8	0.1
6월	2.0	75.4	1.0	9.8	13.2	46.7	3.3	1.5	4.9
7월	-2.9	74.7	2.4	15.1	8.0	23.4	2.4	-4.8	7.3
8월	0.6	75.8	2.1	-60.3	17.3	-0.3	5.2	-4.3	9.5
9월	3.6	75.1	6.2	3.9	8.1	126.4	15.4	8.8	18.5
10월	2.5	74.4	9.0	3.9	12.9	29.8	5.7	-9.5	12.5
11월	0.3	73.0	6.2	-14.8	-4.3	107.0	6.4	-7.8	13.7
12월	-1.7	73.7	4.1	36.5	-1.0	10.8	14.3	9.6	16.0
2016년1월	-2.2	72.8	5.4	-28.0	-6.6	-2.4	6.4	-1.1	7.9
2월	2.3	73.7	3.3	21.5	-8.4	84.1	8.1	-6.8	12.3
3월	-0.5	73.7	6.3	6.5	-7.7	-6.8	20.0	7.8	21.1
4월	-2.7	71.8	3.8	-29.0	-2.5	19.2	14.0	-7.1	23.2
5월	4.4	74.3	4.9	1.6	2.5	-23.6	16.9	-1.4	24.3
6월	0.9	72.4	9.4	22.1	2.1	-8.3	18.1	0.6	26.0
7월	1.5	73.7	4.2	-0.1	-12.6	38.1	17.8	-2.4	25.2
8월	2.2	70.4	6.2	1.3	3.3	52.5	21.0	5.4	27.0
9월	-2.0	71.6	0.2	5.0	-4.0	-39.1	10.9	-9.2	19.2
10월	-1.2	70.9	2.5	-10.7	-3.3	42.7	20.2	2.4	27.3
11월	5.4	73.7	3.2	15.7	10.2	-5.1	28.9	12.7	36.5
12월	4.3	72.7	1.8	32.6	10.5	43.7	17.0	-3.5	32.7
2017년1월	1.3	74.2	4.1	34.3	10.3	16.5	19.7	-3.6	29.9
2월	6.7	71.0	0.5	16.0	19.5	24.3	30.1	8.8	42.2
3월	3.3	72.8	1.2	34.4	23.4	-22.3	24.8	6.1	38.5
4월	1.7	71.7	2.6	41.0	14.3	29.7	24.9	7.7	34.3
5월									

주: 2) 불변 3) 내수용, 선박 제외  
 자료: 한국은행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 1쇄 인쇄 / 2017년 6월 26일

1판 1쇄 발행 / 2017년 6월 30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073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대표) 3771-00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7

ISSN 1229-5396

7,000원

---

